

# 中國 ‘近代’ 小說論과 五四期 小說論의 關係 樣相에 관한 試論

沈 亨 哲\*

## I. 들어가는 말

사상 영역에 있어서의 변혁은 이전의 선구자가 남겨둔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거나 외부세계의 충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현대문학의 개시를 알린 5·4 문학혁명도 일조일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5·4 신문학은 많은 부분 유럽 근대 문화와 문학 영역의 많은 요소들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근대 중국의 역사 발전 속에 축적된 思想과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릇 역사적인 창조는 역사가 제공하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한 시대의 문학은 전 시대 문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기 마련이므로, 매 시대의 문학의 발생과 변혁은 승전계후의 계승관계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미 5·4 시기에 적지않은 신문학가들도 근대 문학이 신문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 바 있다. 周作人은 양계초의 소설개혁을 소설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킨 ‘일대 개혁운동’이라고 찬양하였고, 錢玄同도 양계초는 신문학 창조자의 일인임으로 “현대문학의 혁신을

---

\* 전 서울대 강사, 현재 北京大學에서 Post-Doc. 과정 연수중.

논하려면 반드시 양계초에게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胡適의 《五十年來中國之文學》과 같은 초기의 新文學史 저작에서도 5·4이후의 신문학의 발전을 近代文學의 변화 특히 만청문학개혁론과 연관시켜 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에 의한다면 5·4 문학은 만청문학개혁론과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5·4 문학은 근대문학과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錢理群, 陳平原, 黃子平 등 일군의 학자들이 만청문학을 현대문학의 발전과 연관시켜 논하면서 소위 ‘20世紀文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기존의 近代文學/現代文學/當代文學의 3분법을 극복하고 근대문학사 해석의 주류를 완전히 점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의 논의가 주류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용어자체의 논리적 모순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어찌피 역사는 연속성을 갖는 동시에 단계성을 갖고 있는데다가, 5·4 문학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알리는 뚜렷한 실제적 움직임과 내용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는 담론이 여전히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세기문학’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제시된 후 기존의 근대문학/현대문학 세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문학 세부 각 부분의 실제적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5·4 문학과 근대문학간의 관계양상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겨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론의 측면에서 근대문학과 5·4 문학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시기 문학간의 관계양상에 관한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소설론을 통해 두 시기 문학간의 관계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에 관한 논의가 만청기에 본격화되어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학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양자간의 관계양상에 대한 설명이 보다 진실에 가깝도록 담보해줄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두 시기의 소설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의 논의를 비교의 대상

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5·4 소설론은 시간적으로 근대소설론보다 늦게 나온 것이기에 당연히 전 시기보다 논의의 범위가 넓을 수 밖에 없으므로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양자간의 관계양상을 설명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시기 소설론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소설의 공리성에 관한 논의, 소설의 문학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논의 그리고 백화사용에 관한 논의 등 3가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양자간에 관계양상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 II. 소설의 공리적 기능에 관한 논의의 비교

근대 소설론의 가장 핵심적 이론들은 그것의 功利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리관은 5·4기 소설에 대한 논의속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발견된다. 따라서 근대 소설론과 5·4 소설론의 비교에서 있어서도 두 시기 소설론의 공리성에 대한 비교는 양자의 계승관계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물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표면적 유사성에 현혹되어 쉽사리 계승적 측면을 강조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으로, 표면적 유사성을 뚫고 양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핵심으로 들어가 유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해야만 비로소 진실에 가까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1872년 蠡勺居士가 소설과 사회개혁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康有爲, 夏曾佑, 梁啓超 등이 小說界革命論을 제기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특히 梁啓超는 1902년 발표한 <論小說與群治之關係>를 통해 소설의 공리적 기능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폈다.

한 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며, 정치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고, 풍속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학문과 예술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하며, 곧 인심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sup>1)</sup>

梁啓超는 이 글에서 국민성, 도덕, 종교, 정치, 풍속, 학문과 예술, 인심 등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이 말은 소설만 개혁하면 사회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梁啓超가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한 논리를 제기한 후 1906년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당시의 소설이론계를 거의 석권했다. 그의 논리는 狄葆賢, 陶祐曾, 〈小說叢話〉의 諸人 등과 같이 양계초와 정치적 사상적 입장을 같이 했던 개량파 지식인들 뿐 아니라 소위 ‘혁명파’ 지식인들<sup>2)</sup>과 전 시기까지 유희적 소설관을 가지고 있었던 李伯元, 吳趸人 등과 같은 譴責小說家들<sup>3)</sup>에게도 광범위하게 받아들

1)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資料輯1》, p. 33. : “欲新一國之民, 不可不先新一國之小說. 故欲新道德, 必新小說; 欲新宗教, 必新小說; 欲新政治, 必新小說; 欲新風俗, 必新小說; 欲新學藝, 必新小說; 乃至欲新人心·欲新人格, 必新小說.”: 이후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陳平原·夏曉虹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1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는 《資料輯1》로 嚴家炎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2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은 《資料輯2》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예를 들어 혁명과 인사였던 金松岑은 중국인의 혁명에 의한 중국 광복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東歐女豪傑》과 《無名之英雄》에 대해 “나는 《東歐女豪傑》과 《無名之英雄》을 읽고 더욱 숭배하노니, 만약 우리 국민들이 모두 소피아와 아엔드처럼 혁명당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차안과 강령처럼 혁명운동에 참가한다면, 한족의 광복이 라틴 민족이나 슬라브 민족보다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吾讀十五小豪杰而崇拜焉, 吾安得國民人人如俄敦、武安之少年老成, 冒險獨立, 建新共和制於南極也. 吾讀少年軍而崇拜焉, 吾安得國民人人如南美 意大利、法蘭西童子之熱心愛國, 犧牲生命, 百戰以退虎狼之強敵也.)”라고 평가하였다. 金松岑, 〈論寫情小說于新社會之關係〉, 《資料輯1》, p. 15·4 참조.

3) 1902년 양계초의 소설계혁명론이 제창되기 전까지 ‘遊戯’와 ‘玩世’를 표방했던

여졌다. 이들은 梁啓超의 논리를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소설에 의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가 변화될 수 있다는 ‘神話’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한 논의는 陶祐曾에 이르러 극단에 이르렀는데, 梁啓超가 소설의 효과를 意識 形態의 영역에 한정해서 인정하였다면, 陶祐曾은 소설의 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이해하였다.<sup>4)</sup> 1907년 이후 소설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극단화된 소설공리론에 대한 반발로 黃人, 徐念慈 등이 나와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사회의 기풍이 소설의 성질을 구성하는 힘이 있다”<sup>5)</sup>,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사회의 기풍이 소설의 성질을 구성하는 힘이 있다”<sup>6)</sup>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만연한 ‘소설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소설이란 문학중 미적인 방면

---

문예성 小報의 주편을 맡았던 李伯元은 1903년 이후 태도를 완전히 바꿔, “구미에서의 국민 교화는 대개 소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부흥에도 도움을 주었다. … 어떤 것은 사람들의 병폐에 대해 비판하고 또 어떤 것은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귀감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도를 살펴보면 국가를 도와 국민을 이롭게 하고자 아니 한 것이 없다(歐美化民, 多由小說, 樽桑崛起, 推波助瀾. … 惑對人群之積弊而下砭, 或爲國家之危險而立鑒, 揆其立意, 無一非裨國利民.)”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李伯元과 마찬가지로 전시기까지 유희적 소설관을 가졌던 吳趸人도 이 시기에 이르러 태도를 바꿔, “나는 이전에 해학적인 이야기로 자부하다가 근래에 다시 소설에 종사하면서도 사회를 개량하려는 마음을 한 순간도 스스로 그칠 수 없었다(余向以滑稽自喜, 年來更從事小說, 蓋改良社會之心, 無一息敢自己焉.)”라고 말하였다.

- 4) 陶祐曾, 〈小說之勢力及其影響〉, 《資料輯1》, p. 226. : “정치와 법률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먼저 소설을 확장하여야 하고, 교육을 제창하려면 먼저 소설을 제창하여야 하며, 실업을 진흥시키려면 먼저 소설을 진흥시켜야 하고, 軍事를 조직하려면 반드시 먼저 소설을 조직하여야 하고, 풍속을 개량하려면 먼저 소설을 개량하여야 한다(欲革新支那一切腐敗之現狀, 蓋開小說界之幕乎? 欲擴張政法, 先必擴張小說; 欲提倡教育, 必先提倡小說; 欲振興實業, 必先振興小說; 欲組織軍事, 必先組織小說; 欲改良社會, 必先改良小說.”
- 5) 黃人, 〈小說小話〉, 《資料輯1》, p. 245. : “小說之影響於社會, 固矣, 而社會風尚, 實先有構成小說性質之力.”
- 6) 徐念慈, 〈余之小說觀〉, 《資料輯1》, p. 310. : “小說固不足生社會, 而惟有社會始成小說者也.”

으로 경도된 한 종류이다”<sup>7)</sup>, “이른바 소설이란 理想美學과 感情美學을 합한 것 가운데 最上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라고 주장하여 소설을 공리성 외에 예술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晩淸이라는 민족적 위기공간에서 정치는 문화를 압도했고 따라서 소설의 공리성에 대한 담론은 그들의 논리보다 여전히 좀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소설의 공리적 기능에 대한 ‘신화’는 소설의 공리성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사라진 민국 건립후 소설의 공리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입지를 잃어가면서 유희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논의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도 유희적 소설론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소설론에 각기 삼투되어 불멸의 생명력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민국 초 소설의 예술성을 강조한 대표적 논자인 呂思勉은 한편으로는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한 논의들을 비판하여 “소설은 예술적 제작용으로서 창조를 중심으로 하지 사실적 서술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은 사회를 이끌어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기에 중국의 지금 사회가 거의 소설에 의해 만들어졌다해도 당연하지 아닌가!”<sup>9)</sup>라는 만청기의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한 논의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유희성과 상업성으로 인해 이후 5·4 신문학자들로부터 비판받게 되는 鴛鴦蝴蝶派의 작가들조차도 한편으로는 “저 소설이라는 것을 궁구해보면, 배우와 같은 별볼일 없는 기술로 經世의 문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여가에 단지 淸談의 자료를 제공할 뿐이다”<sup>10)</sup>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희적 소설관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中華小說界》는 교육에 있어서는 별동대요,

7) 黃人, 〈小說林發刊詞〉, 《資料輯1》, p. 234. : “小說者, 文學之傾向于美的方面之一種也.”

8) 徐念慈, 〈小說林緣起〉, 《資料輯1》, p. 235. : “所謂小說者, 殆合理想美學、感情美學, 而居其最上乘者乎?”

9) 呂思勉, 〈小說叢話〉, 《資料輯1》, pp. 414-415.

10) 徐枕亞, 〈小說叢報發刊詞〉, 《資料輯1》, p. 461. : “原夫小說者, 俳優下技, 難言經世文章; 茶酒餘閑, 只供淸談資料.”

문학에 있어서는 오락물이다.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고 성정의 자극을 깊게 한다. … 《中華小說界》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은 문장을 은연중에 감화를 주는 도구로 삼아, 말세의 타락한 풍속을 원상회복시키고 새로운 기운을 들여와 움직일 것을 기대한다”<sup>11)</sup>라고 하여 자신들의 유희적 소설의 공리적 가능성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같이 소설의 공리성에 대한 강조는 그것의 사회적 유효성이 사라져버린民国 초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소설론자를 포함한 문학인의 의식의 심층에서 의식구조의 핵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즉 그것은 바로 20세기 전환기 중국 소설론자와 소설가들의 자기 정체성의 표식이자 창작심리의 핵이었던 것이다.

공리성을 중시하는 소설관은 근대시기를 이어 5·4기에도 계속 주류를 이루었다. 5·4 문학혁명의 강령이라고 할 만한 陳獨秀의 〈文學革命論〉의 분명한 특징은 소설을 포함한 문학의 공리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학혁명과 정치혁명을 연관시켜 고찰한 것이다. 陳獨秀는 이 글에서 1917년 이전의 세 차례 정치혁명의 성과가 미미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혁명운동이 사상계몽운동으로 이어져 나약한 국민성을 개혁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 문예가 봉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정치를 혁신하려면 정치 운용에 기반을 둔 정신계의 문학을 혁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12)</sup>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三大主義’를 주장하며 문학 내용의 혁신을 전면에 제기하는데<sup>13)</sup>, 그의 출발점과 귀착지는 모두 정치혁명, 사상혁명이었다. 즉 陳獨秀는 문학혁명을 정치혁명, 사상혁명의 선도하는 사상혁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5·4 문학혁명 선구자들은 陳獨秀와 거의 마찬가지로 문학혁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하고, 문학혁명을

11) 瓶庵, 〈中華小說界發刊詞〉, 《資料輯1》, p. 411. : “《小說界》于教育中之特別隊, 于文學中爲娛樂品. … 《小說界》以罕譬曲喻之文, 作默化潛移之具, 冀以挽回末俗, 輸蕩新機.”

12) 陳獨秀, 〈文學革命論〉, 《資料輯2》, pp. 19-20.

13) 陳獨秀, 〈文學革命論〉, 《資料輯2》, pp. 20-21.

사상·정치혁명과 결합시켰다. 소설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5·4 초기 《新青年》 시기를 거쳐 文學研究會와 創造社 논자들에서도 계속되었다. 文學研究會의 茅盾은 “인생을 표현하고 인생을 지도하는” 문학의 작용을 강조하여, 문학이 사회생활을 충실히 반영할 뿐 아니라 시대의 결함과 부패를 항의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더 나아가, “번뇌하는 이를 광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創造社의 문학주장은 통상 예술지상주의로 인식되지만, 구체적인 서술 중에서 그들의 “예술에는 목적이 없다”는 말은 문학의 발생론에 대한 설명일 뿐 ‘내면의 요구’에 있어서는 실제 文學研究會의 문학공리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郭沫若是 인생과 무관한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보고 예술의 공리성에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표방하였고<sup>15)</sup>, 成仿吾도 창작자에게 현대생활의 양식과 내용을 “강렬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에 대해 회상의 기회와 평가의 가능성을 가지게 하여”, “차갑게 마비된 양심에 불을 지르고 격동을 일으키도록 호소하였다”<sup>16)</sup>라고 말했으니, 이는 사실상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하고, 문학이 인간의 생활을 인식하고 인간을 교육하여 삶을 개조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5·4기 논자들은 대부분 소설을 포함한 문학이 인간의 사상, 감정, 정신을 혁신시킬 수 있다는 공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보면 5·4기 논자들은 문학의 작용을 인식하는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근대기 소설공리론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근대기의 소설공리론이 5·4 시기 논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14) 沈雁冰, 〈新文學的前途〉, 《小說月報》, 제12권 제7호. 여기에서는 葉子銘, 前揭書, p. 91에서 재인용.

15) 郭沫若是 〈論國內的評壇及我對於創作上的態度〉에서 문예비평이 인신공격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문예의 공리문제를 “예술상의 공리주의문제에 대해 나도 생각한 적이 있다. 예술 자체는 공리적이다. 진정한 예술은 필연적으로 예술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창작가가 순전히 공리주의를 전제로 창작에 종사한다면, 공리성이 오히려 장애가 될지 모른다”고 회답하였다.(葉子銘, 前揭書, p. 91 참조.)

16) 成仿吾, 〈新文學之使命〉, 《中國新文學大系·文學論爭集》, pp. 175-181.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자의 내재적 구성을 분석하면 양자간의 질적 차이는 확연해진다. 양자간의 차이는 소설의 공리성이 무엇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근대기의 소설 공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 문학관의 핵심인 ‘文以載道論’에 형식적 모태를 둔 ‘小說以載道論’에 다름아니었다. 물론 小說界革命論은 梁啓超가 日本의 政治小說論을 수용해서 재기한 것이지만 수용의 과정에서 전통적 ‘文以載道論’과의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모습과 다른 중국적인 것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문인의 창작의식을 지배한 ‘文以載道論’하에서 ‘文’은 ‘道’에 종속되는 관계에 있었으나, ‘道’는 ‘文’을 지배했고, ‘文’은 ‘道’의 부속물이었다. 즉 ‘文’은 ‘道’를 담고 ‘道’를 관통하고 ‘道’를 밝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道’는 유가사상과 연관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 ‘文以載道論’은 ‘文’을 통해 유가의 정치사상을 선전한다는 논리에 다름아닌 것이다. 전통적 지식인으로서의 수업을 거쳤기에 아직 ‘文以載道論’의 영향하에 있었던 근대 소설론자들은 마침 일본 명치기 정치소설에서 도구로서의 소설의 효용성을 발견하고 전통적 文以載道論의 모식에 맞춰 소설을 도를 표현하는 공구로서의 ‘文’의 영역에 집어넣고 예술성 추구에의 부담없이 도구로서 소설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자신들이 추구한 ‘道’를 표현하는데 이용하려 하였다. 지향한 ‘道’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상가들 즉 福澤諭吉, 中江兆民, 加藤弘之를 통해 영국의 功利主義, 프랑스의 自由主義, 독일의 國家主義 등에서 일부 전통 유가사상과 다른 선진적 요소들을 추가하기도 하였지만<sup>17)</sup>, 그 핵심에는 봉건적 요소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추구한 功利主義는 전통적 經世致用 思想과 연관되어 있고, 自尊意識과 愛國主義는 유가적 전통인 ‘憂患意識’과 연관되어 있다. 즉 梁啓超의 사상은 다양한 서구사상에 의해 포장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전통 유가사상이 변형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梁啓超의 小說界革命論에 자극받아 구소설계에서 신소설계

17) 梁啓超의 서구사상 수용의 양상에 관해서는 夏曉虹, 《覺世與傳世》, pp. 189-196 참조

로 吳趸人, 李伯元 등 譴責小說 작가들에서는 유가사상의 흔적이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吳趸人은 자신이 주편한 당시 대표적 소설 잡지의 하나인 月月小說의 발간 서문에 “우리들은 이 道德이 무너져가는 때에 이러한 천박한 풍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곧 마땅히 小說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sup>18)</sup>고 적고 있다. 또한 민국 초 鴛鴦蝴蝶派 작가들이 지향한 ‘發乎情而止乎禮義’라는 의식 속에서는 봉건적 냄새가 더욱 짙게 풍긴다. 이 시기의 이러한 한계는 이 시기 소설가, 이론가, 독자들이 가진 사대부 문인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정되어진 것이었다. 즉 근대의 소설 공리론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유가의식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5·4 논자들의 공리적 관점은 근대 소설론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5·4 논자들의 공리적 관점은 반봉건의식 즉 人文主義, 平民主義, 民主主義의 기반하에 세워진 것이었다. 5·4 신문학에 있어서 반봉건은 최고 명제였다. 이로 인해 人道主義는 5·4 문학관념의 핵심중 하나가 되었다. 周作人이 자신의 ‘人的文學’과 ‘非人的文學’의 개념을 제시할 때 든 예는 전부 소설이었다. 그는 이 소설들이 민중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거나 비인간적 생활을 하면서도 각성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진정한 동정을 표시하거나, 혹은 신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人間’의 의식을 소생시키거나, 이상사회에 대한 그들의 추구 및 현실생활 속의 그들의 감수 및 반응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소설의 문학적 관심이 사회이던 자아이던 간에, 그속에는 각성하는 인간의 진실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파악하였다.<sup>19)</sup> 人道主義 정신은 5·4기 소설작가에게 인생을 정시하는 용기를 부여하였다. 魯迅은 〈論睜了眼看〉에서 “세계는 날로 변화한다. 우리 작가는 가면을 버리고, 진실하고 깊이있고 대담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그의 피와 살을 묘사할 때가 이미 되었다. 빨리 참신한 글과 용감한 장군

18) 吳趸人, 〈月月小說序〉, 《資料輯1》, pp. 170-171. : “吾人丁此道德淪亡之時會, 亦思所以挽此澆風耶? 則當自小說始.”

19) 周作人, 〈人的文學〉, 《資料輯2》, pp. 61-64 참조

(작가)가 있어야 한다!”<sup>20)</sup>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는 표현은 5·4기 소설창작 정신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작 정신은 文學研究會나 創造社 작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서양 현대소설가의 인생에 대한 정시가 인성에 내재한 약점을 대면하여 현대인의 도덕적 곤경을 드러내고 인생의 영원한 비극성을 밝히는 것이라면, 5·4 작가에게 있어서 인생에 대한 정시는 5·4 신문학의 최대 명제인 반봉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1)</sup> 그들의 이러한 창작정신은 봉건사상과 완전히 대립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이 눈을 뜬 후에 새롭게 본 것은 봉건정치제도 및 도덕의식이 민중들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적 삶의 고난과 심리적 해악이었다. 여기서, 인생에 직면하는 용기는 바로 三綱五倫, 전통적 결혼관, 정조관 및 因果應報의 미신 등 모든 봉건 ‘天條’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진부한 관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죄악 및 비루한 습속에 대한 대담한 폭로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新靑年》 시기의 周作人은 ‘인간의 해방과 각성’을 위해 문학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魯迅은 창작을 통해 상층사회의 타락을 폭로하고 하층 인민의 불행을 드러냄으로써 소설의 역량을 이용하여 사회를 개량시켰을 뿐 아니라, 착취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사상의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의 정신적인 약점과 영혼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구사회의 병의 뿌리를 드러냄으로써 치유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sup>22)</sup> 茅盾도 소설이 “현대인의 번민을 호소하여, 사람들이 몇 천년 동안 유전되어 온 모든 인류에 내재되어 있는 편협한 마음과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p>23)</sup>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새로운 사상은 그들에게 사회의 문제에

20) 魯迅, 〈論淨了眼看〉, 《資料輯2》, p. 406. : “世界日日改變, 我們的作家取下假面, 眞誠地, 深入地, 大胆地看取人生并且寫出他的血和肉來的時候早到了, 早取應該有一片嶄新的文場, 早就應該有幾個凶猛的鬪將!”

21) 葉子銘, 前揭書, pp. 89-90 참조.

22) 蔣心煥, “五四新小說理論和近代小說理論關係瑣議,” 《山東師大學報》, 1986年 1期, p. 46.

23) 茅盾, 〈創作的前道〉: 여기에서는 上揭論文에서 재인용.

주의하고, 제4계급에 동정하며, ‘손해를 당한 자와 모욕을 당한 자’를 사랑하도록 요구하며, … 그들은 이러한 정신을 창작속에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4)</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소설론의 공리론과 五四新文學의 공리론은 그 사상적 기반이 판이 하였다. 근대 소설론자들의 공리론은 사대부 문인의 봉건의식에 기초해서 제기된 것이고 5·4 신문학자들의 공리론은 평민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반봉건의식에 기초해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신문학 제창자들은 표면적으로는 近代 소설론자들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공리성의 실질에 있어서 봉건적인 것을 반봉건적인 것-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해방과 각성’, ‘인생을 위한 문학(爲人生的文學)’-으로 대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5·4기 논자들이 반봉건적 정신을 강조하는 공리론을 표방한 방식도 근대 소설론과 같이 전통적 ‘文以載道’論에서 배태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리얼리즘론을 통한 것이었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sup>25)</sup>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양자간에 존재하는 공리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 차이이다. 양계초를 비롯한 근대 소설론자들은 소설의 공리성을 정치상의 직접적인 효용의 측면에서만 이해했지만, 5·4 신문학자들은 문학의 공리성에 대한 해석의 폭을 확대시켰다. 실제 그들이 공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제기한 인간의 해방과 각성, ‘인생을 위한 문학’은 반봉건적 규정성 외에 공리성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이같이 5·4 신문학자들에 의해 문학의 공리성에 대해 해석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5·4 신소설가들은 극단화된 공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더욱 광범하게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5·4 신소설은 전 시기 소설과 달리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26)</sup> 결론적으로 말해서 20세기 전환기 두 시기에

24) 沈雁冰(茅盾), 〈自然主義與中國現代小說〉, 《資料輯2》, p. 233.

25)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전형준,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27-69. 참조.

2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趙環姬, 〈新文學 初期의 功利主義的 文學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참조.

등장한 공리론은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크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 Ⅲ. 소설의 문학적 위상에 관한 논의의 비교

近代 小說論의 공헌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확실하게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4기에 와서 또다시 논자들 사이에 소설의 문학적 위상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양 논의간의 차별성을 설명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양자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양자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근대기 소설의 문학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논의는 크게 1907년을 기준점으로 전후 두 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첫 단계의 논의는 梁啓超를 위시한 小說界革命論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小說界革命論의 핵심 논리는 소설을 이용해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小說界革命論者들은 소설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소설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시기까지 천시되던 소설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우선 소설을 문학의 영역에 편입시켜야 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설을 높게 받든다 하더라도 소설을 문학의 영역에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여전히 소설을 문학보다 한 등급 낮은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문학의 영역에 넣어야만 비로소 이론상 소설의 관할권이 해결되고 진정으로 소설의 위상이 제고되어 근본적으로 소설을 천시하는 전통관념을 바꿀 수 있게 된다. 梁啓超는 소설을 문학의 영역에 넣은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소설은 문학중 최고 경지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모든 문장 가운데 그 (내용상의) 오묘함을 다하고 (형식상의) 기교의 神妙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소설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소설은 문학 가운데 ‘최고 경지(最上乘)’라고 하는 것이다.<sup>27)</sup>

이후에도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는데, 狄葆賢, 陶祐曾, 俠人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 梁啓超의 ‘小說最上乘說’을 거듭 설파하였고, 이를 통해 소설은 전통적으로 멸시받던 지위에서 일약 문학의 최고지위에 올라섰다. 그중 狄葆賢와 陶祐曾의 언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 전에 동서 각국에서 문학가에 대해 논한 것을 보니 반드시 소설가를 제일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어서 놀랬었다. 또 전에 일본인이 지은 《世界百杰傳》을 보았는데 시내암을 석가, 공자, 와싱턴, 나폴레옹과 동렬에 놓고 있어서 놀랬었다. 내 전에 일본어학교의 문학과에 《수호전연의》, 《서상기연의》와 같은 것이 있어서 내 더욱이 놀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본다면 어찌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소설이란 사실상 문학의 최고봉이다. 세상에 문학이 없으면 몰라도 국민들 사이에 문학사상이 없다면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소설가의 지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sup>28)</sup>

동서양의 격렬한 풍조로 확대시켜가고, 고급의 이해의 대강을 확실히 파악한 것으로는 오직 이 소설만이며, 세계의 일반적인 기호에 영향을 미치며, 민족운동의 방침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오로지 이 소설이다. 소설! 소설! 진실로 문학계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것이다.<sup>29)</sup>

27)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資料輯1》, p. 34. : “諸文之中能極其妙而神其技者, 莫小說若. 故曰: 小說爲文學之最上乘也.”

28) 楚卿(狄葆賢), 〈論文學上小說之位置〉, 《資料輯1》, p. 61. : “吾昔見東西各國之論文學家者, 必以小說家居制一, 吾駭焉. 吾昔見日人有著《世界百杰傳》者, 以施耐庵與釋迦、孔子、華盛頓、拿破侖, 吾駭焉. 吾昔見日本語學校之文學科, 有所謂《水滸傳演義》、《西廂記演義》者, 吾益駭焉. 繼而思之, 何駭之有歟? 小說者, 實文學上最上乘者也. 世界而無文學則已耳, 國民而無文學思想則已耳, 苟其有之, 則小說家之位置, 顧可等閑視哉!”

29) 陶祐曾, 〈論文學上小說之位置〉, 《資料輯1》, p. 226. : “膨脹東西激烈之風潮, 握攬古今利害之界線者, 唯此小說, 影響世界普通之好尚, 變遷民族運動之方針者, 亦唯此小說. 小說! 小說! 誠文學界中之占最上乘者也.”

이같이 小說界革命論者들은 소설을 ‘文學之最上乘’이라고 설파했지만,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설의 정치·사회 개혁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나온 것이었으니 진정으로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설의 문학적 위상제고는 1907년 이후 黃人, 徐念慈, 管達如, 呂思勉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룩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글을 통해 소설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논증하였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소설은 진정으로 문학의 최상의 지위에 올라 설 수 있었다. 黃人과 徐念慈는 소설을 그것이 수행하는 사회적 효용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미학적 격조의 면에서 예술의 최고경지라고 추송하였다. 黃人은 “소설을 자세히 논하자면, 문학 중에서 추구할 만한 높은 격조를 지닌 것으로서 심미적 정서에 속하니, 실재를 추구하거나 격식에 얽매인 말(法語)을 선택할 겨를이 없다”<sup>30)</sup>고 말하였고, 徐念慈는 소설의 미학적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이른바 소설이란 理想美學과 感情美學을 합한 것 가운데 最上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고 천명하였다. 民國 초에 들어서면서 管達如와 呂思勉에 의해 소설의 예술적 특성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되었고, 이를 통해 소설은 사회사상의 도구에서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되게 되었다. 管達如是 세계를 ‘현실계’와 ‘이상계(정신세계)’로 나누고 인류의 이상계를 발표할 매개는 소설뿐이라고 지적하였다.<sup>32)</sup> 그리고 呂思勉 예술의 창작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소설이 인류의 미적 본성을 실제에 구현하는 예술의 일종임을 논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기에 소설은 최초 小說界革命論者에 의해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문학의 최고경지로 자리매김되었고,

30) 黃人, 〈小說林發刊詞〉, 《資料輯1》, p. 234. : “微論小說, 文學之有高格可循者, 一屬於審美之情操, 尙不暇求真際而擇法語也.”

31) 徐念慈, 〈小說林緣起〉, 《資料輯1》, p. 235. : “所謂小說者, 殆合理想美學、感情美學, 而居其最上乘者乎?”

32) 管達如, 〈說小說〉, 《資料輯1》, p. 373. : “人類既有此理想, 則必有所以發表之者; 其所以發表之之具則小說是已.”

1907년 이후 다시 黃人, 徐念慈, 管達如, 呂思勉 등에 의해 미학적 예술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최상의 위치를 확인받게 되었다.

소설을 문학의 최고라고 견해는 근대기에 이어 5·4기 논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5·4 신문학운동의 불길을 당긴 胡適은 〈文學改良芻議〉에서 백화소설을 문학의 小道라고 천시하면서 “시내암, 조설근, 오견인이 모두 문학의 정종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시내암, 조설근, 오견인이 문학의 정종”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중국문학중 “세계 ‘제일류’의 문학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백화소설 뿐이다”고 말하였다.<sup>33)</sup> 같은 해 2월 陳獨秀도 〈文學革命論〉에서 명청소설이 근대문학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sup>34)</sup>, 錢玄同 역시 陳獨秀에게 쓴 편지에서 소설이 희곡과 소설을 근대문학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소설은 진실로 문학의 正宗이다”라고 밝혔다.<sup>35)</sup> 또한 劉半農은 〈我之文學改良觀〉에서 소설을 문학상 영원히 존재할 자격과 가치가 있는 양식 중의 하나로 보고 “소설은 문학의 수뇌부(大主腦)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up>36)</sup> 소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견해는 5·4 초기 신문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sup>37)</sup>

이와 같이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시킨 근대 소설론자들의 노력은 5·4 이론가들에게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때까지의 연구자들은 근대 소설론자들이 소설을 ‘文學之最上乘’이라고 언명하기는 했지만 실상 그것은 소설의 대중성과 전파력에 의해 정치사회적 효용이 높아지는 점을 인정한 것일 뿐 진정으로 문학적 위상을 높인 것은 아니므로, 5·4기 논자들의 ‘大主腦’설과는 표층적 연계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질적 차이가 난다고하여

33) 胡適, 〈文學改良芻議〉, 《資料輯2》, p. 18.

34) 陳獨秀, 〈文學革命論〉, 《資料輯2》, p. 21.

35) 錢玄同, 〈致陳獨秀信〉, 《資料輯2》, p. 23.

36) 劉半農, 〈我之文學改良觀〉, 《資料輯2》, p. 26.

37) 沙社鵬, 〈‘五四’小說理論與近代小說理論的關係〉,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4年 第2輯, p. 25.



양자간의 단절적 측면을 강조하였다.<sup>38)</sup>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5·4기 논자들의 소설이 지위를 제고시킨 방식이 근대 논자들과 달랐다고 하여 양자간의 단절을 부각시키는 논의를 펴기도 했다. 이들의 논리는 근대 논자들은 소설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清代 金聖歎이 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소설을 전통문학 체계인 經史子集에 편입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5·4 신문학자들은 소설을 예술로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 지위를 제고시키는 현대적인 방법을 취했으므로 양자간에는 엄연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39)</sup> 물론 이러한 평가는 小說界革命論이 제창될 당시의 논의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옳은 것이다. 분명 小說界革命論의 제창자들은 소설을 經·史·子·集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소설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7년 이후의 논자들은 결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상술한 두 가지 단절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의 결론은 小說界革命論이 제창된 후 몇 년간에 나타난 현상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도달하게 된 것이다. 만약 1907년 이후 黃人, 徐念慈, 管達如, 呂思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논증해 가는 과정과 방식을 고려한다면, 근대에 이미 소설의 문학적 가치가 인정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대 소설론의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미 완성되어 소설은 이미 문학적 가치를 확인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梁啓超 등 小說界革命論의 제창자들이 선도적으로 구소설 관념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의 小說上乘說이 소설을 우선적으로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5·4기의 '소설 正宗·主腦說'이 제기될 수 없었거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5·4기의 '소설 正宗·主腦說'은 근대 소설론의 '上乘'說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근대시기를 거쳐

38) 蔣心煥, 〈五四新小說理論和近代小說理論關係瑣議〉, 《山東師大學報》, 1986年 1期, 1986.

39) 葉子銘, 前掲書, pp. 81-85 참조.

소설의 중요성과 문학적 위상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는데 왜 5·4기에 다시 논의거리로 부상했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5·4 문학혁명론이 제기된 후 이를 뒷받침할 실제 창작결과물이 시·산문보다 소설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소설의 가치에 대한 제창을 통해서 소설 창작을 독려하고자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IV. 백화사용에 관한 논의의 비교

주지하다시피 5·4 문학혁명론에 있어서 백화사용의 제창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공헌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근대 소설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5·4에 앞서 백화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간적 거리가 짧은 두 시기에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쉽게 이 두 표면적 유사성을 갖는 현상을 연계시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현상간에 놓여진 10년이 넘는 정적의 골이 두 현상간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0년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의 공백기를 사이하고 일어난 1900년대 초반과 1910년대 후반의 백화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간의 성격을 비교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백화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소설계혁명론의 형성과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梁啓超는 1896년 처음으로 言文一致와 속어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今人이 말을 함에 모두 지금말을 하지만, 붓을 대면 반드시 옛말을 본 받는다. 그러므로 아녀자나 농투성이들은 독서를 어렵게 생각한다. … 지금의 속어만을 사용하게 하고 소리와 글자가 있는 것으로 글을 짓게 한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고 읽는 사람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sup>40)</sup>

이어서 嚴復과 夏曾佑도 1897년에 구어와 紙上에 쓰이는 언어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소설 효용의 극대화라는 입장에서, “오늘날 사회 일반에서는 구어와 글에 실리는 언어는 그 언어가 크게 다르다. 만약 그 책에서 진술한 것들이 구어의 어휘들과 비슷하면 그 책은 쉽게 전파된다”<sup>41)</sup>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小說界革命論의 형성 초기에 이들은 소설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라는 입장에서 통속적이고 구어적인 어휘 즉 白話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小說界革命論者들은 소설을 그들의 정치 사상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에, 소설이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설의 내용이 변화무상하고 재미가 있다는 점외에, 소설 언어의 통속성과 생동감 또한 독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소설의 사회적 영향력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소설 언어의 통속성과 생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백화사용과 언문일치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1902년 소설계혁명론이 본격적으로 제창되기 시작되면서 논자들이 인식의 지평을 넓혀 ‘文學의 進化’라는 각도에서 소설언어의 구어화의 문제를 논하였다. 梁啓超는, “문학의 진화에는 커다란 관건이 하나 있으니, 곧 고어의 문학에서 속어의 문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각국의 문학사의 전개는 모두 이러한 궤도를 따르고 있다”<sup>42)</sup>고 주장하고 이어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구어사용의 전통을 요약한 다음 결론적으로, “만약 사상의 보급을 희망한다면, 이 체는 단지 소설가들만이 채용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40) 梁啓超, 〈變法通議·論幼學〉, 《資料輯1》, p. 12. : “今人出話, 皆用今語, 而下筆必效古言, 故婦孺農氓, 靡不以讀書爲難事. … 今則未能如是, 但使專用今之俗語, 有音有字者以著一書, 則解者必多, 而讀者當亦愈夥.”

41) 嚴復·夏曾佑, 〈國聞報館附印說部緣起〉, 《資料輯1》, p. 10: “而今世之俗, 出于口之語言, 與載之紙之語言, 其語言大不同. 若其書之所陳, 與口說之語言相近者, 則其書易傳.”

42) 〈小說叢話·飲冰條〉, 《資料輯1》, p. 65. : “文學之進化有一大關鍵, 卽由古語之文學, 變爲俗語之文學, 變爲俗語之文學是也. 各國文學史之開展, 靡不循此軌道.”

문장에서도 그러하다. 소설은 절대로 고어의 문체를 사용해서는 뛰어날 수 없다”<sup>43)</sup>라고 주장하였다. 狄葆賢(楚卿)도 梁啓超의 관점을 받아들여 속어를 사용한 문체의 유행이 문학진보의 최대 관건이라고 전제한 다음 구미와 일본의 언문일치가 속어문학의 발전에 가져다 준 이점을 소개하면서 소설의 발전을 위한 언문일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44)</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소설론자들의 백화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설의 전파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해서 소설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어져 중국 소설의 변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세상을 깨우치는’ 白話小說이 창작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문제제기후 실제 창작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논의를 심화확대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봉착한 현실적 어려움은 창작자와 독자 모두가 백화에 익숙치 않았고 여전히 고문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창작자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과거에 대비한 八股文 훈련을 받았기에 문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었고,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古文의 사용이 白話 사용보다 쉬운 일이었다.<sup>45)</sup> 또한 그들이 제창한 ‘신소설’의 독자들도 백화를 원치 않았다. 백화사용의 문제를 제기한 논자들은 ‘新

43) 上同: “苟欲思想之普及, 則此體非徒小說家當採用而已, 凡百文章, 莫不有然. 小說者, 決非以古語之文體而能工者.”

44) 楚卿(狄葆賢), 〈論文學上小說之位置〉, 《資料輯1》, p. 63. : “俗語文體之流行, 實文學進步之最大關鍵也. 各國皆爾, 吾中國亦應有然. 近今歐美各國學校, 倡議廢希臘、羅馬文者日盛, 卽如日本, 近今著作, 亦以言文一體爲能事, 誠以文之作用, 非以爲玩器, 以爲菽粟也. … 故俗語文體之進, 實淘汰、優勝之勢所不能避也. 中國文字衍形不衍聲, 故言文分離, 此俗語文體進化之一障礙, 而卽社會進步之一障礙也.”

45) 이러한 사실은 姚鵬圖의 “이러한 사실은 무릇 문장력이 조금만 높은 사람이라도 순전히 백화로 된 책을 주는 것은 오히려 문언으로 된 것이 훨씬 읽기 쉬움만 못했다. 내가 근년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회의를 열고 연설하며 계몽을 목적으로 강의를 함에 모두 백화체를 사용하였는데, 붓으로 써내는 것은 文言보다 백배는 된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姚鵬圖, 〈論白話小說〉. 袁進, 前揭書, p. 102에서 재인용.) 실제 그들이 백화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원인은 그들이 백화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고문으로 생각한 다음 백화로 번역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周作人 著, 金喆洙 譯, 《中國新文學史話》(서울: 同和出版公社, 1983), p. 66.)

小說’의 독자층이 계몽의 대상이 될 일반 백성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독자는 ‘구학계에서 신학계로 전향한’ 사대부 문인들이었고, 그들은 백화사용의 제창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고문의 훈련을 받았기에 고문에 익숙했고 고문을 좋아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대 소설론자들의 백화사용에 대한 주장이 5·4 시기의 논자들과 같이 평민 의식에 기반한 ‘國語文學’, ‘國民文學’의 건립과 같은 문학의 근대화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더라면 그들의 주장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백화에 대한 신념과 거시적 비전이 있었다면, 그들이 백화사용을 주장한 글을 쓰면서 백화를 사용했을 것이고 백화사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고문의 폐지를 역설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백화를 고급화시키고 표현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이 5·4 논자들과 같은 백화에 대한 신념과 거시적 비전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사대부적 문인의식에서 말미암는다. 그들의 사대부 계급적 의식은 夏曾佑의 다음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학문계가 넓어져서 사대부들은 평소에 여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설로 눈(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녀자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만한 책이 없다. 그들이 문화를 수입하고자 하면, 소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sup>46)</sup>

夏曾佑는 이 글에서 분명하게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구분하는 분명한 사대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문인들이 가졌던 사대부의 계급적 우월의식은 5·4 신문학의 제창자들에 의해서도 간파되었다. 胡適은 근대 문인들의 비평민적 우월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적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결점은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쪽은 ‘그

46) 夏曾佑, 〈小說原理〉, 《資料輯1》, p. 61: “今值學界展寬, 士夫正日不暇給之時, 不必再以小說耗其目力. 惟婦女與粗人, 無書可讀, 欲求輸入文化, 除小說更無他途.”

들'이고, 한쪽은 '우리들'이다. 한쪽은 白話를 써야만 하는 '그들'이고, 한쪽은 古文과 古詩를 지어야 하는 '우리들'이다. 우리는 여전히 고기를 먹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들 하층사회는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고, 단지 그들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어 먹게 하면 그만이다. ... 이러한 '上大人들'은 크게 자비심을 발휘하여, 어린 백성들이 무식하고 무지한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격을 낮추어 통속적인 문장을 써서 그들에게 읽게 한다.<sup>47)</sup>

胡適의 지적처럼 근대 문인들은 5·4기 문인들의 평민의식과는 다른 사대부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백화사용에의 논의를 하층 백성에 대한 계몽효과의 극대화라는 한점에 고착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근대 소설론의 백화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대부 의식에 기반해서 백화의 효용성만을 중시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4기의 白話文運動은 근대 소설론의 백화사용 주장과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근대 소설론자의 백화사용 주장과 같이 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거시적 기획과 보다 숭고한 이념적 기반하에서 나왔다. 5·4기 백화문운동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서양의 국가가 보여준 민족 언어의 통일의 과정에서 착안한 것이었고, 그 궁극적 목적은 '國語文學', '國民文學'을 내용으로 하는 '新文學'의 건설에 있었다. 즉 그들은 백화의 제창을 '新文學'의 건설과 연결시킨 보다 거시적 기획을 갖고 있었다. 이점은 5·4기 백화문운동의 주창자인 胡適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괴적인 면에서는 다만 “죽은 문자가 결코 산문학을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오직 새로운 문학사관을 가지고 고문학의 정통을 타도하고 백화문학을 중국문학의 정통으로 세우려는 것이며, 건설적인 면에서는 다만 지금까지 문인들에 의해 경시되어 오던 백화를 가지고 모든 문학의 유일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 이로써 중국 현재와 미래의 신문학을 창조한다.<sup>48)</sup>

47)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48) 胡適,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또한 5·4기 백화운동의 창도자들은 분명한 평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층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백화사용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고문의 폐지도 주장하였으며, 백화를 통해서도 고문을 사용한 문학을 능가하는 고급문학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근대 소설론에서의 백화사용 주장이 피상적으로는 5·4기 白話文運動의 선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양자가 전혀 다른 층차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양자의 백화주장은 사상적 토대와 그 목적을 달리했다. 근대 소설론자들은 紳士의 입장에 서서 소설의 공리적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백화의 사용을 주장했고, 5·4기의 논자들은 평민의 입장에서 ‘국민문학’의 건설을 위해 백화의 사용을 제창했다. 따라서 양자의 표면적 동일성을 가지고 양자의 계승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선부른 판단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V. 맺는말

필자는 본고를 통해 근대 소설론과 5·4기 소설론 내지 문학론과의 비교를 통해 양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양자의 관계속에는 계승적인 측면과 단절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후대인의 인식은 언제나 전대인의 인식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는 소설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임으로 5·4 소설론에 대한 근대 소설론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인식의 보편적 규칙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양자가 동일한 문학단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고의 논의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5·4의 소설론과 근대 소설론간의 표면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관심의 대상이 된 논제가 유사했다. 이러한 사실은 5·4 신소설론이 근대 소설이론을 자신의 사상적인 재료와 출발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간의 표층적 연계를 뚫고 들어가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공리성에 대한 시각, 백화 사용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양자간의 질적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차이는 근대 소설론자들과 5·4 논자들간의 세계관과 문학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근대 논자들은 귀족주의적 봉건적 세계관과 전통적 ‘文以載道’적 문학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5·4기 논자들은 인간의 개성과 존엄을 중시하는 ‘平民主義的 世界觀’과 ‘國民文學的 世界主義的 文學觀’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양자간의 질적 차이는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차이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양자간에는 계승적인 측면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격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를 계승으로 보이게 하는 양자간의 표면적 유사성은 어떠한 역사단계에도 존재하는 인식의 관성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양자를 동일한 문학단계의 산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본고를 통해 얻은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와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한 논의는 마땅히 5·4를 하나의 중요한 기점으로 설정한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도 본고의 결론을 통해 재추론해볼 수 또 하나의 결론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본고의 결론을 바탕으로 얻은 전체 근대문학과 5·4 문학간의 관계에 대한 단상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할까 한다. 필자가 이 검증되지 않은 한낱 단상을 소개하는 것은 이후의 연구자들의 관심과 검증작업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이다. “근대문학과 5·4문학간에는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다. 그 간극을 아무도 뛰어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역사의 단절을 의미할 것이지만 5·4 신청년들은



근대기의 다른 문학가들과는 달리 근대 문학가들이 놓아온 문학의 변혁을 향한 징검다리의 마지막 디딤돌을 힘차게 뒹고 도약에 성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약의 성공에는 그들이 올바르게 섭취한 서양 근대문학의 자양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막 디딤돌을 뒹고 도약해 건너온 그들은 새로운 역사의 장에는 또 다시 서구의 근대문학이 제공한 다양한 출로가 놓여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출로를 맞이한 5·4 신청년들은 대개 그들이 일찍이 경험한 근대문학의 모식과 표면적으로 비슷한 모습의 출로에 이끌려 그 길로 나아갔다. 그들의 선택에도 역사의 관성의 법칙은 어김없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전 시기의 문학과 표면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유사성을 깨고 들어가 들여다 보면, 내면의 본질은 이전의 그것과는 판연히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전 시기까지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문학의 길 즉 근대성을 지향하는 문학에의 길로 나아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그 전진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지리한 고통의 역정의 길이었기에 중국문학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조망없이 관성의 법칙과 현실적 요구에 성급한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는 하기에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문학의 미래의 기획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5·4 이후의 문학만이 아니라 5·4 이후의 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역사적 관성으로 작동한 근대문학까지를 하나로 묶어 살펴봐야 할 당시대적 당위성은 존재한다 하겠다.”

## 參考文獻

- 陳平原·夏曉虹 編,《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1卷,北京:北京大學出版社,1989.
- 嚴家炎 編,《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2卷,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7.
- 郭延禮,《中國近代文學發展史》第2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1.
- 郭延禮,《中國近代文學發展史》第3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2.
- 方正耀,《中國小說批評史略》,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
- 葉易,《中國近代文藝思想論考》,上海:復旦大學出版社,1985.
- 葉子銘 主編,《中國現代小說史》第一卷,南京:南京大學出版社,1991.
- 袁進,《中國小說的近代變革》,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
- 趙遐秋·曾慶瑞,《中國現代小說史》上冊,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84.
- 朱德發,《中國五四文學史》,濟南:山東文藝出版社,1986.
- 陳伯海·袁進 主編,《上海近代文學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3.
- 夏曉虹,《覺世與傳世》,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1.
- 許懷中,《中國現代小說理論批評的變遷》,上海:上海文藝出版社,1990.
- 黃子平·陳平原·錢理群,《二十世紀中國文學三人談》,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8.
- 陳平原 著,이종민 譯,《中國小說敘事學》,서울:살림,1994.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近代文學의 形成過程》,서울:文學과知性社,1983.
- 周作人 著,金喆洙 譯,《中國新文學史話》,서울:同和出版公社,1983.
- 管林,論中國近代文學的過度性特點,華南師大學報 1986年 3期,1986.
- 馬嘯,論‘小說界革命’的反文學傾向,中國近代文學研究叢刊 第3輯,中山大學(廣州),1985.

- 沙社鵬, ‘五四’小說理論與近代小說理論的關係,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4年 第2輯.
- 李德堯, 傳統改良蛻變—論‘五四’文學觀念的更新,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8年 2期.
- 林薇, 論林紓對近代小說理論的貢獻, 中國社會科學, 1987年 6期, 1987.
- 任訪秋, 晚清文學革新與五四文學革命, 文學遺產, 1983年 1期, 1983.
- 蔣心煥, 五四新小說理論和近代小說理論關係瑣議, 山東師大學報, 1986年 1期, 1986.
- 陳謙豫, 晚清小說理論管窺, 古代文學理論研究叢刊 3輯, 1981.
- 蔡景康, 晚清小說理論初探, 古代文學理論研究叢刊 第1輯, 1979.
- 湯哲聲, 鴛鴦蝴蝶—禮拜六小說觀念的價值取向及其評價, 蘇州大學學報, 1982年 4期.
- 解志熙, 簡論革命派的理論貢獻與晚清小說理論的深入發展, 河南大學學報 1985年 2期.
- 趙璟姬, 新文學 初期의 功利主義的 文學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中文摘要】

## 試論中國‘近代’小說論與五四時期小說論之關係

沈亨哲

本稿試圖通過比較近代小說論和‘五四’時期小說論從而探明了兩者間究竟存在何等關係。由于兩者關注的論題相似，所以很容易輕率地得出結論，認為‘五四’新小說論是以近代小說論為思想基礎和出發點的。但實際上，如果撥開兩者間表層的繁復聯係而深入到內部，就可以確認兩者間存在着明顯的質的差異。

本稿就兩個時期的小說論者共同關心的論題，即所謂小說的功利性、提高小說的文學上地位的問題及白話使用的問題等三個方面展開比較來討論兩者間的關係情況。其結果是在關於小說功利性的方面和使用白話方面兩者間的差異明顯地表露出來。而且，確信無疑，造成這種質的差異的原因在于近代小說論者與‘五四’小說論者間世界觀和文學觀的差異。近代小說論者依然不能擺脫封建貴族的世界觀和‘文以載道’的傳統文學觀的束縛。與之相反，‘五四’時期的小說論者確立重視人的個性和尊嚴的‘平民主義的世界觀’和‘國民文學的世界主義的文學觀’。兩者間的這種質的差異正是近代性與前近代性的差異。因此，筆者就兩者間關係得出了最終結論：兩者間是相互隔絕的，甚至幾乎可以忽略他們之間的繼承性。同時，兩者表面的類似性似乎表現出兩者間有繼承性，實際上，這是在任一歷史階段都會存在的認識的慣性法則作用的結果，決不應据此認為兩者屬於同一文學階段的產物，這是本稿得出的又一個結論。